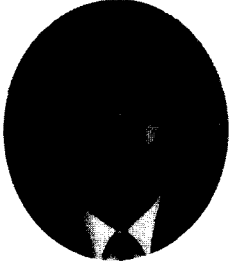




기획시리즈



최명섭  
입업연구원

옛 부터 산초, 쨌피, 초피, 파초, 천초, 남초, 개산초 등 이름이 많은 것으로 보아 우리 생활에 그 만큼 밀착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열매는 식용유 자원이며 여러 가지 조미료로 사용되었고 생선 요리나 추어탕에 비린냄새를 없애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으며 중국에서는 5향(五香)이라 하여 산초, 회향, 계피, 정향, 진피의 다섯가지를 혼합하여 요리의 향신료로 사용되고 있다.

초피나무의 가시와 냄새는 귀신이 싫어하고 무서워해 이 나무를 울타리로 한 집에는 병마가 범접하지 못한다며 생울타리로도 즐겨했다. 노인들이 초피나무나 산초나무의 지팡이를 즐겨 사용한 것도 이 때문이다. 또 열매가 많이 달린다는 것 때문에 다산(多産)의 주술적인 의미도 있어, 옛 부터 뜰에 한 두그루씩 식재 하였다.

# 초피나무

과명 : 운향과

학명 : *Zanthoxylum piperitum*

영명 : Piperitum Prikly Ash

한명 : 山椒, 川椒

일명 : さんしょう

초피나무 열매 7개와 동쪽으로 향한 측백나무잎 7개를 넣고 빚은 초백주(椒柏酒)는 선달 그믐날에 마시던 민속주의 하나다. 한해, 악기(惡氣), 괴질, 액운을 물리친다고 믿었다.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초피나무류는 산초나무(*Z. schinfolium*), 가시가 없는 민산초(*Z. schinfolium* for. *inermis*), 가시의 길이가 2cm이내이며 잎이 난형, 또는 난상 타원형인 것을 (*Z. schinfolium* for. *subinermis*), 잎이 가늘며 1cm미만인 것을 좁산초(*Z. schinfolium* for. *microphyllum*)라고 한다.

## 1. 생태적 특성

중부 이남 산지의 양지바른 암석지대나 인가주변에서 자라는 낙엽관목으로 높이 3m정도이며 일본에도 분포한다. 내한성이 산초나무에 비해 약하므로 중부이북 지방에서는 가지나 새순이 겨

울철에 동사하는 경우가 있다.

내건성은 비교적 강한편이며 전석지에서도 잘 견디고 양수이나 음지에서도 생육하고 있을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맹아력은 보통이고 줄기는 곧추 자라며 탁엽이 변한 가시가 잎의 좌우(左右)에 대생하고 있다.

## 2. 형태적 특성

잎은 어긋나고 기수1회 우상복엽이며 소엽은 9~10개이고 난형, 긴난형, 란형, 난상 타원형이며 미요두(微凹頭) 예저이고 길이 1~3.5cm로서 4~7개의 파상 톱니가 있으며 톱니의 기부와 엽면 끝부분에 선점(腺點)이 있고 향기가 있으며 잎 중앙부에 연한 황녹색의 반문(斑紋)이 있고 흔히 엽축에 가시가 있다.

복총상화서(復總狀花序)는 엽액에서 나오며 연한 황녹색 꽃이 달리고 꽃은 2가화로써 5~6월에 피며 5개씩의 화피와 수술이 있고 자



▲산초나무



▲초피나무

방은 떨어져 있으며 기부에 대가 있다. 열매는 적갈색으로 반점이 있고 9월에 익으며 흑색 종자가 들어 있다. 가시가 앞의 좌우에 대칭하고 소엽의 수가 9~10개인 것이 초피나무이고, 산초나무는 줄기의 가시가 어긋나고 소엽의 수가 13~21개인 것이 차이이다.

### 3. 조경수로써의 활용

5~6월에 피는 녹갈색 꽃이 이색적이고 늦가을에 익는 열매가 새로워 가정 정원에 한 두그루 심거나 생울타리로 조성해 두면 꽃도 감상하고 봄에 나오는 새순은 식용으로 가을에 익는 열매는 식용 혹은 약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 좋다.

어느정도 맹아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생울타리 조성에 적당

하며 전석지 혹은 사면녹화에도 사용할 수 있다.

### 4. 번식법

종자번식은 가을에 채취한 종자를 파종 1개월전에 노천매장 하였다가 봄에 파종하면 쉽게 묘목을 얻을 수 있다. 노천매장 하지 않을 시 기건저장 하였다가 파종 전에 세척제로 종자 겉껍질에 붙은 유지성분을 제거한후 파종할 수도 있다.

### 5. 그 밖의 용도

조선 중종실록(中宗實錄)에 보면 삼포왜란후 일본과의 교역이 잠시 두절되어 후추수입이 막히자 약용으로 쓰는 후추는 제외하고 양념은 초피나 산초로 대응케 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한방에서는 말린 열매를 산초 혹은 천초(川椒)라 하여 건위와 회충, 구충, 정장, 발한, 강정제 등으로 이용했다. 일본 식단에 주로 오르는 생선회를 먹을 때 초피나무 새순을 1~2개 먹는 것은 이렇듯 살충, 살균의 성분이 강하여 생선의 중독에 해독제로 작용이 탁월하기 때문이다. 또 옷이 울랐을 때는 산초잎을 달여 피부를 씻든지 나무껍질을 삶은 물을 목욕물에 섞어 목욕하면 잘 낫는다 했다. 과실주를 담가도 일품이다. 잎이나 열매는 장아찌도 만들고 김치의 조미료인 나물로도 먹었다.